

“T800·사라 코너 팔팔해”...슈워제네거·해밀턴의 자신감

영화 ‘터미네이터:다크 페이트’ 내한 기자회견

아널드 슈워제네거-린다 해밀턴 28년만에 재회

아널드 슈워제네거와 린다 해밀턴이 무려 28년만에 T-800과 사라 코너로 함께 ‘터미네이터’ 시리즈에 출연했다. 두 사람은 배우 커리어의 초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영화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담긴 소감을 밝혔다.

2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영화 ‘터미네이터:다크 페이트’(감독 팀 밀러)의 내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감독 팀 밀러와 함께 주연 아널드 슈워제네거와 린다 해밀턴, 맥켄지 데이비스, 니탈리아 레이즈, 가브리엘 루나가 참석했다.

‘터미네이터:다크 페이트’는 심판의 날 그 후, 뒤바뀐 미래에서 새로운 인류의 희망 대니(니탈리아 레이즈 분)를 지키기 위해 온 슈퍼 솔저 그레이스(맥켄지 데이

비스 분)가 최첨단 기술력으로 무장한 최강의 적 터미네이터 Rev-9와 벌이는 새로운 운명의 격돌을 그렸다.

이 영화는 ‘터미네이터’(1984) ‘터미네이터2: 심판의 날’(1991)과 같은 세계관을 공유한다.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2: 심판의 날’의 주인공이었던 아널드 슈워제네거와 린다 해밀턴이 출연하며 전편의 연출을 맡았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28년만에 돌아와 제작을 맡았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직접 지목한 ‘데드폴’의 팀 밀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터미네이터2: 심판의 날’(1991) 이후 28년만에 T-800과 사라코너로 재회한 아널드 슈워제네거와 린다 해밀턴은 각자 벅찬 감회를 밝혔다.

아널드 슈워제네거는 “배우가

된 것부터 시작해 이렇게 훌륭한 인기를 끄는 프랜차이즈에 참여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면서 “제임스 카메론이 1984년에 터미네이터 역할을 맡겨줬다. 그리고 이 영화가 84년부터 내 배우 커리어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이후에도 아주 많은 액션 영화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나이를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늙지 않았다. 트레이닝도 꾸준히 매일 하고 있어서 섭외가 와도 준비돼 있다”며 “이번에도 몇개월 전부터 스팀트, 코디네이터, 트레이너와 함께 하면서 여러 스팀트 액션을 반복해 연습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나이가 들었나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쓸모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나이는 들었지만 쓸모없고 팔팔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린다 해밀턴은 “아널드를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은 대단한 순간이었다”면서 “아널드와 오랜 기간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없었는데 커리어 초반에 사라 코너와 T800으로 처음 태어났을 때 돈독한 관계

를 형성했다. 시간이 흐르고 아널드가 주지사도 되고 바빠서 만날 수 없었다. (영화를 통해) 오랜만에 봐서 기쁘고 반가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화 의상을 입고 만났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웠다. 순간적으로 캐릭터나 영화로 몰입할 수 있었다”며 “1년간 트레이닝을 받고 준비해서 갑자기 사라 코너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몰입이 되는 상황에서 세트장에서 아널드를 다시 만났을 때 100% 이 영화에 복귀했구나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갔다”고 했다.

영화는 전편처럼 여자 캐릭터들을 통해 강렬한 액션을 보여줬다. 팀 밀러 감독은 “여성 주인공은 항상 처음부터 중요했다. 이번 영화는 사라 코너의 여정을 이어가는 면이 강하다. ‘터미네이터2’의 결말에 따라 사라 코너가 미래를 바꾸고 그 선택에 대한 댓가를 치르는 것이다. 이전에 없는 새 캐릭터들이 등장했다. 이미 시작된 이야기를 계속해 이어간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할리우드 배우 니탈리아 레이즈(왼쪽부터), 맥켄지 데이비스, 아널드 슈워제네거, 린다 해밀턴, 가브리엘 루나, 팀 밀러 감독이 2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열린 영화 ‘터미네이터:다크 페이트’ 내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30년 전부터 한국을 방문해 왔던 아널드 슈워제네거는 “지난 번 한국에 왔을 때 ‘아이 윌 비 백’이라고 말했다. 터미네이터는 게 기쁘다”고 내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터미네이터:다크 페이트’는 오는 30일 개봉한다.

뉴스1

김지현 “두 아들 상처받을까 걱정...상의 뒤 결심, 감사”

“언젠가 해야 할 얘기” 아이들에 대한 애정 드러내



결혼과 함께 두 아들의 엄마가 된 지현

큰애가 고1 작은애가 중2

결혼한 남편의 두 아들을 키우고 있다고 고백한 톨라 출신 김지현이 “언젠간 해야 할 얘기였다”며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거듭 드러냈다.

지난 20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김지현이 결혼한 남편의 두 아들을 키우고 있으며, 현재 아이를 갖기 위해 시술을 하고 있다고 고백해 화제를 모았다.

방송 후 용기 있는 고백을 한 김지현을 향한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터, 김지현은 21일 뉴스1과 통화에서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타이밍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도 직접 얘기하고 싶었고, 친한 사람들은 아니까 자연스럽게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게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지현은 특히 “아이들과 함께 여행 간 사진도 올리고 싶고, 가족 사진도 올리고 싶은데 못하니가 불편했다”면서도 “사실 아이들이

사춘기라 더 걱정이 컸다. 혹시나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그런 걱정이 가장 컸던 것 같다. 그래도 남편과 아이들과 상의하면서 고백을 결심했다. 언젠가 해야 할 얘기라고 생각했다”며 두 아이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두 아들의 반응을 묻자, 김지현은 “방송을 같이 보자고는 안 했고, 방송 전에 가족 사진이 나간다고 보여줬더니 작은 아들이 ‘할’이라는 반응을 보이더라. 그래도 남편이 아이들이 더 잘 적응하고, 엄마가 공인인 만큼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며 공개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작년에만 해도 엄마와 같이 방송하고 싶다”고 고백했는데 많이 컸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김지현은 최근 두 아들의 엄마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아침엔 전쟁이다. 아이 깨우는 게 쉽지 않다. 달려며 깨우고 그러다. 저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저희 가족 아침도 다 챙겨 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지현은 “잘게,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사실 저

는 팬찮지만 아이들이 가장 걱정이었는데,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하다. 송길 일도 아니고 속이 시원하다. 아이들이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다”라며 웃었다.

앞서 지난 20일 방송된 ‘미운 새’에서 이상민은 결혼한지 4년 된 톨라 김지현의 집에 집들을 가서 대화를 나눴다. 이상민은 자연스럽게 지현의 아이에 대해서 물었다. 이에 지현은 “큰애가 고1, 작은애가 중2”라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알고보니 지현은 지금 결혼한 남편이 아이가 있었고, 결혼과 함께 두 아들의 엄마가 됐다는 설명이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기에 스튜디오의 패널도 놀랐다. 김지현은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말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 자연스럽게 하고 싶었다. 아이들의 의견도 중요했다”고 밝혔다. 또 든든한 아들에 딸까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시험관 시술을 7번했다”면서 “몸은 건강하네 나이가 문제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힘들어도 노력 중”이라고 고백해 모두의 응원을 받았다.

아이유, 새 앨범 발매 연기

“개인적 시간 조금 필요해”

가수 아이유가 컴백을 연기하며 팬들에게 직접 미안함을 전했다. 아이유는 지난 20일 자신의 팬 카페를 통해 ‘안녕 유애나!(아이유 팬클럽명)’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오늘은 유애나에게 미안한 소식을 전하러 왔다”며 “11월 1일 공개 예정이었던 저의 새 앨범 ‘Love poem’의 발매 일정을 조금 뒤로 연기하게 됐다. 통명의 공연을 2주 정도 앞둔 상황이라 공연의 전반적인 메시지, 셋리스트 등의 문제로 일정에 대해 스태프 분들과 함께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 개인에게 시간이 아주 약간 필요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준비했던 음악들을 들려드리기까지 절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과 실망스러운 공연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만큼은 꼭 약속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광주광역시

일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